



# 영웅조선의 위용 떨치신 백두령장의 불멸의 업적 만대에 빛나리

조국 해방전쟁 승리 57돐을 맞으며

## 승리의 7.27을 안아오신 천재적군사전략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민족적공헌과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안겨주는 승리의 7.27이 왔다. 근 60년전 바로 이날 미제가 우리 인민앞에 무릎 꿇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성대한 평양시군중대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떠받치는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만세의 환호성은 강산을 진감하였다.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터져오르던 장쾌한 축포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 것만 같다.

오늘로 당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를수록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린 천재적군사전략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천만의 가슴 뜨겁게 달아오른다.

또다시 우리 인민에게 망국노의 피눈물을 강요하려 덤벼드는 미제의 침략의 불길을 완강한 조국수호정신의 열풍으로 뒤번져놓으며 영웅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전승업적.

그것은 인류가 낳은 전설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평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투쟁업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백과사전적인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남강도 미제를 무릎꿇게 한 조선의 합과 승기였으며 드립없는 신념과 락관을 안겨준 필승의 기치였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두고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의 우뢰소리만인 인민군부대들에 하달하시던 명령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가슴을 퐁퐁 울린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격렬한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은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적사상적 및 전략전술적우세로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의 선언이었다.

미제가 본토의 대병력을 끌어오는 데 적어도 한달이상이 걸려야 하며 일본에 있는 미군의 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려고 해도 우리가 반공격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만 하면 신속히 남방부 전지역을 해방할수 있다는 것, 미제침략군은 제국주의군대로서의 취약성과 손쉽게 달성한 승리에 도취된 극도의 오만성, 정치도덕적저열성을 가진 무뎠한 고용병들이라는 것, 적들은 우리 무력을 파소령가하며 허장성세한다는 것...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선의 이런 군사정치적세와 적의 약점, 우리의 우월성과 앞으로의 정세발전추이 등을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분석하시고 반공격작전은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였던 것이다. 그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며 남으로 노도와 같이 진격한 인민군부대들은 적의 화력밀도가 제일 높은 38° 선지역의 기본전단을 급속히 소멸하고 단 3일만에 적의 이성인 서울상공에 공화국기를 휘날렸다.

적을 무자비하게 추격할것이며 어떻게 하나 급속히 공격할것!

련속공격작전방침을 제시하시고 완강한 의지와 전개력으로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우리



열병대오에 단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수령님의 천명한 령도가 있어 인민군부대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남부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얼마나 많은 통쾌한 전투들이 미제를 경악케 하고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세상사람들을 놀래웠던가.

전쟁이 일어날지 며칠만에 주문진 앞바다에서 우리의 용감한 해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과 유인전술, 련속적인 분산돌격전술을 능숙히 활용하여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자랑하던 미해군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다. 미제는 기절초풍하였다. 미일군사전문가들과 종교권자들이 《오산의 비극》, 《미군의 비극적인 패주의 첫맛》이 열렸다고 논평한 오산전투는 또 얼마나 통쾌했던가. 인민군대가 미군만 보면 몇것이라고 떠벌이던 미제 《상승사단》의 선전대가 단숨에 포위되어 비참히 전멸되었다.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하면서 구축해놓은 금강방어선이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단 이틀사이 물먹은 담배처럼 무너지고말았다. 미제의 《상승사단》의 사단장이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뢰를 얻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나아린 인민군전사들에게 수 손을 들고 발벌 떠는 수치의 광경을 내리시고 적들을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중심고리들 면 바로 틀어쥔 이기에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이 있다.

## 전승을 위해 바치신 1분1초

해방전지 5년, 창건되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100여년의 침략 역사를 가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조선이 거둔 기적적승리.

돌아보면 그것은 1분1초를 귀중히 여기기를 불철주야로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의하여 마련되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날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주제 39 (1950)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최고사령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령도하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전환경속에서 리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리발사는 전진선에 머리를 쫓 끌어안은 일이 있는 인민군대의 평범한 병사였다.

병사들의 리발이나 해주던 서문 솜씨로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의 리발을 헤드린단 말인가. ...

그는 이런 생각으로 울렁거리게 가슴을 가가르르 누르며 리발도구를 갖추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이께서는 병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리발을 들고 어떻게 몰라하는 그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보내시며 수고를 좀 해주시오, 지금은 1초가 새로운 때요라고 하시며 수수한 나무결상에 앉으셨는데 그이께서는 오죽 바쁘시고 시간이 긴박하시었으면 리발하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라.

병사는 뜨거워지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를 우러렀다. 그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전선에서는 급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고, 그러나 오늘은 리발을 간단히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리발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간이 없는데면도는 그만두자고 하시며 일어서려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사가 뒤면도만이라도 꼭

하셔야 한다고 제삼 말씀드리자 아이췌는 심정으로 다시 앉으셨다. ...

인류의 전쟁사에는 명장들에 대한 일화들이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1분1초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엮으시고 리발을 하시는 짧은 시간마저도 그러했 귀중히 여기시며 헌신하신 레는 기록된적이 없다.

전쟁의 배 순간순간이 그렇게 울렸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엮여왔다. 이 위대한 헌신의 날과 달들이 있어 반공격으로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 조국의 고지마라도 승리할 함성이 리겨울왔으며 마침내 가멸처럼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나게 되었었던 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을 맞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가슴깊이 새겨안는다.

우리 수령님께서 바치신 위대한 헌신과 로고의 1분1초가 있었기에 우리가 세기를 이어 환희롭게 경축하는 승리의 7.27이 있다는 것을. 본사기자

## 전화의 나날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

### 승고한 화폭

주제 39 (1950)년 7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림진강가에 이르렀을 때 적의 폭격으로 하여 다리는 동령 끊어졌었다.

화와 소리를 내며 울러내리는 림진강물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행원들에게 이 곤방에 철다리가 있을테니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였다.

수행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캄캄한 야밤에 그것도 언제 저기가 달려들지 알수 없는 위험한 속에서 어떻게 차가 철교의 침묵을 타고간단 말인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철교로는 절대로 못 가신다고 절절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전선의 동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다

### 영웅적 위훈의 원동력

주제 40 (195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불비속을 헤치고 1211고지를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에게 1211고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군인들이 먹고 입고 휴식하는 문제로부터 전투중도에 이르러까지 모든 생활을 육전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에게 콩나물도 많이 길러 국도 끓여먹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의 간곡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달도 없는 야밤에 차를 타고 한치한치 림진강철교를 건너 전선의 군인들을 찾아가시였다. 정녕 세계전쟁사에 일컫기 없었던 승고한 화폭이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달도 없는 야밤에 차를 타고 한치한치 림진강철교를 건너 전선의 군인들을 찾아가시였다.

정녕 세계전쟁사에 일컫기 없었던 승고한 화폭이었다.

받안았으며 지휘관들은 크나큰 감격에 목메이였다. 그루에도 전화로 이곳 지휘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원들은 모두가 귀중한 보배이며 혁명전우들이라고 하시면서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사들에게 머운밥과 따뜻한 국을 먹이며 잠자리도 출지 않게 해주어 그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다심한 친어머니사랑은 1211고지의 전사들이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거듭되는 약탈한 공격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수 있게 한 영웅적위훈의 원동력이였다.

수 있게 한 영웅적위훈의 원동력이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 스웨리에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7월 26일 발조선 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하여오는 마르 포에르 주 스웨리에왕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박길원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 선군혁명경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경도업적을 통한 선군혁명경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이 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경도업적을 깊이 학습하고 들끓는 작업현장에 나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널리 해설전파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포전에 나간 일군은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장군으로 강화발전 시켜 나가는



선군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승리와 영광의 축포가 터져오른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로동통신원 조상구

본사기자 김성남

# 위대한 한 당의 전승업적을 빛내이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나가자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백전백승의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와 남조선피괴당당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결사의 각오를 안고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변혁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을 경축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3년간의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한 주제 4.2 (1953) 년 7월 27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낸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깨뜨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전승의 날입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함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사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또한 혁명의 총을 어깨에 짊어잡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전제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영웅하게 싸운 인민군영웅선사들과 애국열사들에게 세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을 경축하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제적군사상상과 전법, 탁월한 지략과 세련된 명군술로 반미대결을 승리로 이끌어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게 되새겨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지난날 50년대의 전승의 위훈과 전통을 이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아시아침략의 길을 열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음흉하게 준비하고 모략적으로 도발한 침략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등장하여 세계제패를 내의 전략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조선반도를 그 첫 대상으로 정한 미제는 전조선에 체념들의 완전한 전진조,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 야망밑에 남조선피괴군을 내몰아 38°선 일대에서 무장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

조선전쟁계획에 따르는 군사적도발과 실전연습에 미쳐남뛰던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의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제는 미리 꾸며놓은 각본에 따라 전쟁을 도발한 바로 그날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비법적으로 소집하고 전쟁발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놓았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침략을 허용하고 미군주주의 《유엔군》을 조직한다는 《결의》들을 려이어 강압파시킴으로써 침략자, 전쟁방신자로서의 강도성을 날님이 드러냈습니다.

유엔헌장을 짓밟고 조선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동용하여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유엔무대를 더럽힌 미국의 책동은 그 어떤 법률적리당성도 없는 날강도 행위이며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할 수 없는 엄중한 국제법적범죄입니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우리 인민

의 조국해방전쟁은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반대하고 인류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었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 남조선피괴군 및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장비와 최신전투기들을 동원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들을 다 적용하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으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세군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도처에서 민간적절한 살륙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략자 미제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와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 정치, 도덕적패배를 안기고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영웅하게 싸운 인민군영웅선사들과 애국열사들에게 세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전체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제적 군사상상과 전법, 무비의 단력과 탁월한 명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대전쟁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에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각적인 반공격으로 침략자들을 무차별하게 격멸소탕하도록 하신 위대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애국심을 높이 발양시키고 탁월한 전략기술과 전법을 능숙히 활용하시어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한 전략기술적우세로 격파함으로써 침략자들을 연속 궁지에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인민대중의 사상의 위력에 결정적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불타는 애국심을 높이 발양시키고 탁월한 전략기술과 전법을 능숙히 활용하시어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한 전략기술적우세로 격파함으로써 침략자들을 연속 궁지에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창시한 우리 인민군대가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전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대참패를 안긴 것은 전쟁의 전과정에서 주제의 군사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시어 제국주의자들의 《무기만능론》을 짓부시고 반제혁명전쟁의 세계적도발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적인 군사전략사상과 전법, 탁월한 지략과 명군술의 불패성과 위력에 대한 자랑찬 파시르 됩니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력이 남김없이 펼쳐진 전인민적인 혁명전쟁이었습니다.

가말치질한 전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풍을 같이하시며 그들을 전쟁승리에 힘있게 불타르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 힘을 무릅쓰시고 불비 쏟아지는 최

전선까지 나가시며 인민군부대들의 작전과 전투를 몸소 현지에서 지도해주시고 싸우는 전사들에게 무적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셨으며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며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해방후 5년간의 꿈같이 행복했던 생활과 전쟁승리의 나날들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사야말로 삶의 은인이시고 운명의 수호자이시라는 것을 심장같이 절감한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는 시대에 반드시 이긴다는 불굴의 신념과 탁관을 안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습니다.

영웅한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은 총독탄이 쏟아지고 하늘땅이 불타는 속에서도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하나의 고지, 한치의 땅을 피로써 지켜냈으며 전신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 높이 발취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들이 정의의 성전을 벌이고있는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 지원하였으며 특히 중국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들을 조직된 지원군을 조선전쟁에 파견하여 우리를 괴로써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수를 반대하여 건걸기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 불멸의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영웅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예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음흉한 회색을 찾아대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위의 군사원리와 《일방백》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용성같이 다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존엄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는 세계적 대정치파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기

회로 사회주의의 가치,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자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였으며 《핵문제》를 들고나오며 우리에게 대한 압박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불취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이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들이 정의의 성전을 벌이고있는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 지원하였으며 특히 중국인민은 자기의 우수한 아들들을 조직된 지원군을 조선전쟁에 파견하여 우리를 괴로써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수를 반대하여 건걸기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 불멸의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영웅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예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음흉한 회색을 찾아대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위의 군사원리와 《일방백》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용성같이 다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존엄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는 세계적 대정치파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기

회로 사회주의의 가치,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자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였으며 《핵문제》를 들고나오며 우리에게 대한 압박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불취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 높이 발취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수를 반대하여 건걸기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 불멸의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영웅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예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음흉한 회색을 찾아대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위의 군사원리와 《일방백》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용성같이 다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존엄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는 세계적 대정치파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기

회로 사회주의의 가치,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자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였으며 《핵문제》를 들고나오며 우리에게 대한 압박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불취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 높이 발취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수를 반대하여 건걸기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 불멸의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영웅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예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음흉한 회색을 찾아대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위의 군사원리와 《일방백》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용성같이 다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존엄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는 세계적 대정치파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기

회로 사회주의의 가치, 반제반미투쟁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자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였으며 《핵문제》를 들고나오며 우리에게 대한 압박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에 우리 혁명이 처한 국제적환경과 급변하는 정세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무력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불취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 높이 발취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값 높은 영웅으로, 위대한 행보로 여기는 승고한 사상정신적품모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미제의 새로운 세계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원수를 반대하여 건걸기 싸운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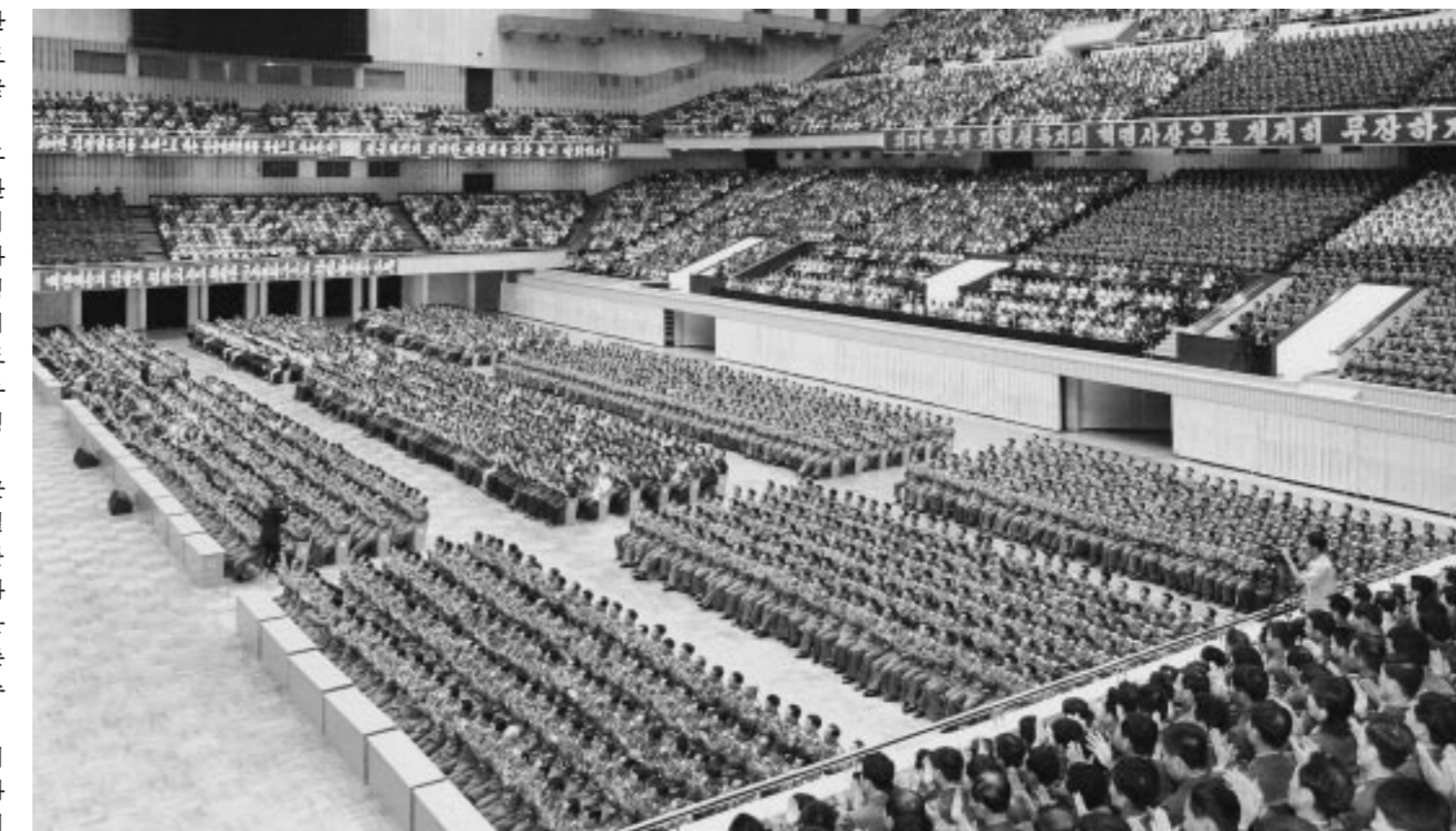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호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위업의 승리의 상징으로 영생 불멸의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영웅조선의 백승의 전통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예에 의하여 세기와 년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 후에도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음흉한 회색을 찾아대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위의 군사원리와 《일방백》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의 군사진지를 철용성같이 다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존엄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여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미제는 세계적 대정치파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을 기



# 선군의 기치따라 전승의 역사를 굳건히 이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

##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령군술이 안아온 자랑찬 승리

7월 27일, 승리의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안겨주는 전승일이 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력 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거만하고 폭대를 꺾어놓은 승리의 7. 27!

조국해방전쟁 승리로 이끄는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묘의 정이 7월의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투쟁의 참전지시이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투쟁의 혁명전령령을 빛내는 승리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조선의 영재이십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대결전이었다.

창건원칙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세계 《청춘》을 떠드는 미제와의 전면전쟁.

당시 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과연 조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때 백두의 명장

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침략전쟁에는 정의 해방전쟁으로!

공격에는 반공격으로!

조선에서 전쟁의 운명은 《72시간내에 결판》 내게 될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미쳐달랐다. 미제의 면상을 후려치며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령장의 단호한 결심과 철의 의지, 필승의 신념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조국보위성전에서 산악같이 일어세게 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직사상적 및 전략전술적우세로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며 남포도 노도와 같이 진행되는 인민군부대들은 반공적격으로 넘어간지 불과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렸으며 전쟁이 시작되기 한달 남짓한 기간에는 공화국군반부적의 90% 이상과 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전화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2전선을 배합한 총반공격전, 저격수조할동, 비행기사상군준운동, 땅투어수령에게 크게 기여하였다.

후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크사남군준운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안에서 주체전법을 무리히 하시며 지새우신 밤은 그 열매이며 불비뿐아는 고지의 전사들을 찾아가지는 최전선전군은 열마나 멀고 험했다.

서울, 수안보, 지혜산...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함께 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를 확신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법들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

불비뿐아는 준엄한 전화의 날 남 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이 격정되서 더운밥과 따뜻한 옷을 해먹도록 은정인 조치를 취해주신 이야기, 적구에 있는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을 위해 한계 편대의 령장을 동원시킨 구출작전, 전사들을 위해 마련된 최후휴양소...

그처럼 준엄한 싸움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태일을 내다보신 어머니수령님의 백승의 의지와 강철의 담력, 비범한 선견지명에 의해 전선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대학

투에서 새로운 위훈을 세우게 하였다.

항일의 혈전속에서 마련되고 전화의 나날에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은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2전선을 배합한 총반공격전, 저격수조할동, 비행기사상군준운동, 땅투어수령에게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으로 소환되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평양시북구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되었으며 백두산기슭에서는 백두고원개간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력사상 처음으로 무상치로제가 실시되는 것과 같은 전설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굴의 신념과 백승의 의지, 철의 담력과 명활무쌍한 지략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조선의 불멸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변불후의 로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무사시온으로 키우고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 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곧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신념과 무비의 담력,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자랑찬 승리인 동시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그 지략과 안고성에서 있어 수류체를 찾아보기 힘든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보기에 좋게 타승하고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연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반미대결전에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새로운 위훈을 세우게 하였다.

항일의 혈전속에서 마련되고 전화의 나날에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인민의 원군기풍은 선군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방인민들은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포탄과 식량을 날랐으며 근거리공탄남운동, 전선원호미탄남운동, 위문품수집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전선원호사업들을 힘있게 벌리었다.

1952년 11월 평원군의 다수화능인들이 전선원호미탄남의 붐바는 삼시에 온 나라에 퍼져 전공적적인 전선원호미탄남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4월말까지 각지에서 한달된 전선원호미탄남의 수천에 달하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성진제강소(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갑자기 달려드는 적기편대의 폭격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쇠뿔이 들어찬 남비를 쇠뿔로 끌어내어 위험에 처한 로를 구원하였으며 구상방지공장의 로동계급도 폭격으로 전기공급이 끊어졌을 때 손으로 기계를 돌려 천을 짜다. 용남비로공장(당시), 장진강발전소 등 이 땅의 모든 일터들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선생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로동계급의 불굴의 기개를 높여 주었다.

을 떨칠수 있게 한 고무적기기로 되었다.

승리의 7. 27! 이날은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의 년대기에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한 제2의 해방의 날로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전승업적과 백승의 전통은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수십년간 미제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전쟁도발행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위성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혁명적의 수뇌부뒤에 철옹같이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고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며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의 응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동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를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전위성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3년간에 걸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한몸이 근대 육탄이 되어 미제침략자들과 불사시처럼 싸웠다. 온몸이 부상을 입고도 턱으로 충고의 압력을 눌러 적들을 끌어내리고 수류탄을 발사하여 적들속으로 뛰어어들어 무적의 순간에도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방위를 맞받아 나가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죽여 버렸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었다. 어머니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후대들의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여عب되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원수들은 지난 조선전쟁이 가르쳐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60년전 우리 공화국을 요망기에 앞날사하고 미제가 일

본사기자 김진옥

사회주의 우리 제

# 북침전쟁세력들은 선군총대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나라의 평화와 안전수호의 보검

# 엄중한 반공화국군사적도발

오늘 우리 인민은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버리고 영웅적인 기상과 위용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자 사나운 침공군은 전승의 그날을 갈피잡이 들어오려는 이 시각 우리의 심장마다 뜨겁게 아로 새겨지는 진리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험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 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임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나는 승리로써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수직, 기술적우세에 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선군혁명론의 정당성을 확증해주었다.

선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전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시어온 혁명방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시기부터 자제의 혁명무력에 의거 한 강도 일제의 침략을 무력적으로 격퇴하시어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시었다. 해방 후 당과 국가를 창건하는 것처럼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시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어오셨다. 미제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양기에 얹어버리려고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지만 항일의 빛나는 전승을 이어받은 불패의 혁명무력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원수적력의 싸움에 파국당히 펼쳐나선 영웅적인민은 반침성전을 벌려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후에도 미제와 그 추종들의 북침전쟁도발소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승리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다. 우리 공화국이 반세기이상의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거듭해올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강요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인재를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일찌부터 총대중시, 군사중시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앞에 가장 준엄한 시험이 도착하였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온전히 수호하시었다. 선군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의 위협세력의 온갖 도전자와 괴담알책동을 제압분쇄하고 필승불패의 군사적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힘있게 이룩하시었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군사강국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는 필승의 보루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그렇듯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고있으며 바로 그때문이다.

우리의 선군정치와 있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은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입증해주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전망들의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반공화국대결소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하다. 미국과 리명박정부는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대규모적인 해상원합훈련을 벌리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있다.

관문점사건이후 최대구모의 무력이 동원되었다는 한자적 사실만 놓고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위협성과 침략적성을 충분히 알수 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은 사실상 처음으로 남조선미국 《외교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전쟁연습과 추가계속을 강행한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미제와 피괴화전망들은 올해 말까지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발발소동을 연이어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그것이 아닌 언제 침략전쟁으로 번져있을지 하는것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더욱더 위협하는 미제와 그 추종들의 침략 야망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푸에블로》호사건과 《EC-119》 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에 대해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투입하여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오늘날의 정세는 그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현실은 우리 당이 펼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만약 우리에게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은 이미 떠났을것이다. 미제와 그 추종들의 침략책동이 걸음마다 분쇄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유지되고있다는것은 다름아닌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는 한 승리의 력사는 영원하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고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미제와 그 추종들이 또다시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제2의 7.27을 안아오야말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의 무리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 안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오야 말 불타는 결의를 총만피어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사나운 풍파를 헤치고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여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는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와 피괴화전망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민족의 자주적명제권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 전쟁광신자들에 대한 저주와 규탄

지금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을 일삼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지친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엄바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논평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오려고 날뛰는 호전광들을 규탄하였다. 논평은 미국이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모략사건과 전쟁도발책동을 적극 후쿠기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있고다고 까밝히면서 전제 민중이 대결전쟁세력을 무모한 망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워나아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전대도 논평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정세로 몰아가고있는 보수당국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논평은

《천안》호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의장명명이 발표됨으로써 북측을 넘겨져 의제를 실현하려던 당국이 국제적정당관 당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논평은 당국이 대결책동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어오던 평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전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10개 시민사상, 청년학생, 종교단체 등은 지난 7월 13일 130차 《조국통일평화회담》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피괴화전의 침략 《동맹》 강화책동을 단죄하였다. 단체인들은 첩보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침략 《동맹》 강화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요구하였다.

남조선종교계에서도 우리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참화를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며칠전 미제 7함대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피괴화전망들의 해상원합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기어올랐다. 《해상훈련사상 최대구모》라고 하는 미국과 피괴화전의 이번 해상원합훈련에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구축함, 원자력잠수함, 피괴화전의 대형상륙소함함과 구축함, 1200기갑수함함을 비롯한 20여척의 대형함정들이 투입되고있다. 또한 피괴화전의 《F-15K》 전투기 등 20여기의 비행기들이 동원되고있다. 지검이 술한 무력이 조선동해의 해상과 공중에서 판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다. 미제 7함대와 주일미군기지의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이 판문점 협상을 위한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그러나 이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이 판문점 협상을 위한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이라는것을 시사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미국은 지난 5월 그 무슨 《유사시에 대한 작전 및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F-22A》 전투기 1개 비행대대(12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가내나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괴화전망자들은 《리퍼블릭 30보내에 북의 핵시력을 선제 타격할수 있다.》고, 《1시간 이내에 북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때때로 미제침략관과의 야합으로 우리의 전략적중심에 선제 타격을 가할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문제의 전투기로 말하면 현재 미공군의 주력어 유류는 《F-15》, 《F-16》 전투기들과의 공중전도시험에서 《절대적우세》를 나타낸 매우 위협한 핵선제공격수단이다. 어느 한 위성이 조선동해로 향한 《F-22A》 전투기편대를 두고 《불기름을 불고 오는 전쟁독수리들》이라고 평한것은 유언치 않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F-22A》 전투기편대를 비롯한 위협한 공격수단을 남조선해상에 끌어오려 대규모적인 불장난소동을 벌려놓는것은 이번 해상원합훈련이 본질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극히 도달적이며 침략적인 전쟁연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전망들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조선동해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해상원합훈련을 끝낼때 벌려놓았다. 28일까지 강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제침략관과 남조선피괴화전망 800여명대 미제 7함대와 피괴화전망의 합정 20여척, 200여대의 전투기 등 방대한 전쟁장비들이 투입되었다. 이것은 해상군사연습 사상 최대규모로서 말아 연이어 조선반도에 대한 기습적타격을 노린 또 하나의 시험전쟁이다.

호전광들의 이번 해상원합훈련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용담 못 할 범법행위이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화들이 력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린 침략전쟁연습과는 달리 이번 해상원합훈련은 매우 위협적하고 극히 도달적인 성격과 미고있다. 1000km의 작전반경을 가진 초대형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최신예 전투기인 《F-22A》 스텔스 전투기편대의 투입, 훈련규모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연례적으로 강행해온 군사연습들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잡은것 등만 보아도 그것은 명백하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을 때마다 《망이없는 전쟁을 위한 100만인사》 이니 뭐니 하고 광고하던 호전광들이 이번 훈련에는 그 무슨 《대북무력시위》 성격을 부여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 및 공중원합훈련》을 속박한 성향이라고 내놓고 떠들고있는것도 간과할수 없다. 더욱이 이번 해상원합훈련이 미제와 피괴화들이 조작해낸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으로 북침 단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있는 때에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미제와 피괴화들이 합선침몰사건의 모략적성악이 어지럽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장난소동을 벌려놓는것은 그들에게 조선반도에 군사적충돌을 방치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내외 여론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명명도 안중에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실제로 미제와 남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문제

## 위협천만함 《3각군사동맹》 강화책동을 폭로

남조선의 민주로총대변인 이기제와 피괴화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일본 《자위대》까지 동참하려하는것과 관련하여 23일 이를 폭로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감행하려는 조선동해에서의 해상원합훈련에 일본 《자위대》까지 참가하게 된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이번 해상원합연습이 남조선과 미국, 일본합력연습을 관복하게 구축하기 위한 매우 위협천만함 전

경도발행위임을 보여주는것이 라고 논평은 주장하였다. 논평은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동맹》은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광신자들의 《동맹》이라고 하면서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조선반도정세속에 이 남조선, 미국, 일본합력연습이 북침을 노린 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격이라고 지적하였다. 리명박 《정권》이 호시탐탐 독도침략을 노리는 일본에 조신동태로 진출하는 길을 스스로 열어놓았는 명백히 미국행위라고 논평은 단죄하였다. 논평은 리명박이 권력유지를 위해 조선반도전쟁위기를 불어오는것도 성취치 않아 일본에 바디까지 열여주는 원안공노당 역적행위를 감행해왔다고 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논평은 미국과 리명박 《정부》가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는 합동군사연습을 걸어치우려 하며 일본도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김 현 철

## 모략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것을 주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피괴화전망들의 반공화국모략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것을 일로 강조하였다. 논평은 참여연대의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이 《천안》호를 공격한 잠수정의 크기, 명칭, 사건당일 이동로에 대해 애매했던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천안》합선상조사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호의

복합장소가 틀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폭로되고 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합선침몰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대기 위한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것들이 《결정적 증거》로 판명되었다고 하면서 끝까지 모략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진압인을 잡아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이 국제사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모략사건에 대해 사과할 대신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우 협회 의원보선거 《국회의원보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보수해당의 권력형부정사건 영포회사건은 지금 그들을 극도의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영포회사건을 통하여 지금껏 권력을 사유화하고 마구 탐용하면서 《국정》을 문란한 리명박정권의 추악한 정치는 날마다 드러났다. 바빠맞은 보수해당은 사건이 《정치적사건이 아닌 개인적사건》에 불과하다고 떠들면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도 자모를 쓰려고 한다. 이런 꾀술을 내세워 사건관계를 소환조작하는 눈물을 벌리고있다. 이것이 검찰수사를 구실로 시간을 끌어 《국회의원보충선거》를 무난히 지나보내려는 계획이라는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에게 집중되어있는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그 무슨 《분권형 《대통령》 제》를 도입하자고 떠들면서 《개헌》 문제를 들고나오고있는것은 《선거》를 거행한것이다. 《분권형 《대통령》 제》에 대해 말한단것은 비단 어 제 때를 지켰던 문제다 아니다. 그것을 놓고서는 이 미 법제건 부러 남조선정치의 선봉은 물론 분분하였다. 하지만 여야당사회의 리명박의 불일치로 하여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있었다. 하다면 《한나라당》이 이리 복잡하고 장기간적인 성격을

## 《국회의원보충선거》를 둘러싼 남조선정국

내로하고있는 문제를 왜 하필 《국회의원보충선거》로 끌어들이고나왔는가 하는것이다. 그 목적은 한미더 밀착하여 저를 받들고 《대통령》을 기소했다가 증거부족으로 재판에서 패하고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 그에게 정적인 흠집을 내어 야당세력을 끌어들이는 계책을 세우고 수사소동을 집요하게 벌려서 피뢰침찰은 또다시 그 무슨 《세로운 증거》를 운운하자 《국회의원보충선거》를 며칠 앞두고 그를 부러 부러 불구속시켰다. 이것이 《선거》를 거행한 불분한 정치판안이라는것은 누구나 짐작할수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해당파를 《선거》를 앞두고 민감성기만과 모략소동, 전보세력 탄압에 아무리 광기를 부리고 있어도 이번 선거는 등진 반역파들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가즈어라는 반역 《정권》에 참패를 안고으로써 민중의 힘이 얼마나 강했었는가 다시금 보여주자고 호소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며칠전 남조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취통발언이 정치적파문을 일으키면서 반역파들 많은 더욱 수세에 몰리고있다. 남조선정세 흐름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모면해보고 싶었지만 모략파 책동을 단하고있던 보수해당을 지지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아내리는 민심들과 진보세력의 위기는 확고부동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 침략 《동맹》 강화책동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2일 미국과 남조선피괴화들의 침략 《동맹》 강화책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21일 미국과 남조선의 외교, 군부당국자들이 《외교국방장관회담》을 벌려놓고 그 무슨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과 남

조선이 2009년 6월 백악관에서의 당국자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수상》에 의거하여 《동맹》을 더욱 확대강화할 속성을 드러내보였다고 논평은 밝혔다. 논평은 또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국에게서 강화책동을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전략동맹 2015》라는것

## 《4 대강정비》 공사를 반대하여 동성

대화에 대한 《국회》도 공사에 내한 전면적인 검증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가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환경운동연합, 남기치기대도 만든 저들의 반역적의혹을 가려주기 위한 교활한

## 《4 대강정비》 공사를 반대하여 동성

남조선의 환경운동연합 성원들이 피괴화들의 《4대강정비》 공사를 반대하여 22일 여러 지역에서 동성투쟁을 벌렸다. 경기도 리추군 대신면 천서리연대 공사를 중단하라는 단정서원들은 《4대강을 단정수리》라 고하여 천서리 연대서원들이 《4대강사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괴화들의 반인민적책동을 강력히 규

탄하였다. 그들은 환경운동가로서 비리적이고 반생태적인 《4대강정비》 공사강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리명박 《정부》가 공사를 중지할 때까지 부기한 동성을 벌릴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정부》가 시급히 민중과의

##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걷어치우라

남측본부의 논평을 발표하여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오려고 날뛰는 호전광들을 규탄하였다. 논평은 미국이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모략사건과 전쟁도발책동을 적극 후쿠기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있고다고 까밝히면서 전제 민중이 대결전쟁세력을 무모한 망동을 저지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워나아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남조선인민들 침략 《동맹》 강화책동과 전쟁연습 소동의 중지를 요구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남조선의 경기전보대, 민주로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각계 단체들이 22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남조선피괴화전망들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동해에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형잠수정기 등을 동원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성명은 전쟁연습을 위해 미국의 최신형잠수정기들이 남조선에 총진출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발발을 예고

## 핵심 제라 격을 노린 우협인 불장난

하는 매우 위협한 움직임이 아닐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성명 본사기자 리 성 호

# 반제반미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군사적업적을 이룩하신 강철의 령장

력사상 처음으로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끝없이 빛나고있다. 뜻깊은 진승전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를 타승하고 사회주의와 세계평화, 정의의 수호자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형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파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사이다.》**

지난 20세기에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크고작은 전쟁들이 있었다. 이 전쟁들에서 이룩했던 군사기술, 장군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반제반미투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업적을 창조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걸출한 백전백승은 없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가장 참예한 정치군사적모범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었다. 그것은 미제의 조국침략전쟁이 사회주의력량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력량을 군사적힘으로 압살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와 국제반동연립세력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정치군사적 대결이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상승》과 《무적결승》을 뽐내던 저들의 《정예부대》와 남조선피뢰군, 15개 추종국가군대 등 200여

만의 병력과 술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심든든하게 승리를 확신하시고 온 나라 전체 군민을 미제와의 대결전으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군민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원주결전의 성전에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어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꺾어버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전법, 전략전술들을 창조하신것은 반제반미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40 (1951)년 9월 23일 조선인민군 제 256군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담화 《1211고지를 뚫음으로 사수하라》, 같은 해 12월 3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처장 이상 장령, 군관들앞에서 하신 연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투행동을 보다 적극화할 데 대하여》, 주제 41 (1952)년 2월 7일 조선인민군 연대간부들을 위한 단기사공에서 하신 연설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민군대에 나서는 몇가지 교범》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법, 전략전술들을 밝히시였다.

전쟁은 적자간의 무장력량의 대결인 동시에 군사전법과 전략전술의 대결이다. 그런것만큼 무장력은 물론 전략전술과 전법, 특히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에 의거하여야만 자기 승리를 다할수 있다. 전쟁승리를 담보할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사대주의자들 과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 식으로 싸우자고 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다른 나라의 전법으로 싸우지는 안되며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조선식전법으로 싸워야 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를 중국처럼 땅이 넓지 못하기때문에 중국식전법으로 운동전이나 지구전을 할수 없다. 운동전은 적을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기진맥진해했을 때 치는 전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지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 지구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쏘련식전법도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지 않는다. 쏘련에서는 무연한 벌판으로 한번에 수백, 수천대의 땅크를 날려버리는데도 우리 나라는 산이 많기때문에 그렇 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백, 수천대의 땅크가 동시에 움직일수 있는 벌판이 없으며 지형조건으로 보아 앞서나가던 땅크가 파괴되면 그뒤를 따르던 땅크가 적의 공격을 받아 파괴될수 있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포화력을 쏘는 우라 하는데 그것은 평사포가 아니라 포사포를 같이 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선사람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하고 중국사람들은 젓가락 하나를 하되 쏘련사람들은 칼과 포크로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에 식사할 때 중국사람처럼 긴 젓가락으로 하라거나 쏘련사람들처럼 칼과 포크로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도 우리 식대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군혁명 령도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주제적립장을 확고히

정지하시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한 유격전의 전법을 정규적인 यु구에 맞게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우리 식 전법, 주체의 전법들을 수없이 창조하시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연속적인 타격전법, 유격전과 정규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의 배합, 산악전과 야간전의 전법, 강도에 의거한 즉구적인 진지방어전, 저격수조, 비행기사냥군조, 땅크사냥수조운동 ... 즉시적인 반공격!

우리 수령님의 이 전법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진선에 걸쳐 반공격전으로 이행하여 3일전에는 적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한달 후에는 남반부 전지역의 90% 이상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는 군사적업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과연 력사에 어느 장군이 강대한 침략자들이 불에 달러들 때 주저없이 반공격명령을 내렸는지 알겠는가. 수많은 승패를 기록한 인류전쟁사는 오늘날에도 적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을 명명한 군사령관을 알지 못하도다. 일정하게 전선에 서 후퇴하여 숨을 들인 후 반공격시행을 편성하고서야 공격한 실례는 있었으나 적들의 불의의 대규모적인 첫 공격을 좌절정도가 아니라 반공격으로 완전히 퇴짜한 전쟁력사를 위대한 수령님이 위하여 처음으로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밖에도 적들의 군사행동을 절멸하고 좌절시키고 나타나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함으로써 침략자들을 불안하고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독립중기조항을, 적후방의 중요대상물들을 기습, 파괴함으로써 적들을 괴란시키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적후파괴활동, 주제적인 포병전법으로서의 이동포병전대, 기동기포전대, 대활동 등 수많은 전법들을 창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창조하신 모든 전법들은 인민전쟁에서 그 개념조차 없었던 새로운 독창적인 령명하의 전법들이었다. 그것은 군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협동에 의거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게 한 전법들이었다. 또한 그것은 공격해오는 적들을 뿐 아니라 방어하는 적들도 소멸하고 나타나는 적들을 몰아내어 솜털화시킬수 있게 한 위대한 전법들이었다.

전쟁은 군사적대결전, 사상전이든 두뇌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전법, 전략전술로 미국과 서방의 령합세력의 군사기술이 머리를 짜서 내놓는 전략과 전쟁전법들을 단독으로 격파하시며 전쟁 전법과 최고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적들을 수세와 혼란에 몰아넣으시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나라에서 투로가지로 활동한 로파야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전쟁은 《세계평화》를 끌어내는 대군과 그것에 겨워 대군 대군대의 전쟁, 연합국세력과 한계나라사이의 보복싸움을 벗어난 대결이었다. 전쟁사상 가장 격렬한 두뇌의 전쟁, 의지의 전쟁이었던 조선전쟁의 나날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덤테스, 맥아더 등 손꼽힌다. 《조선전쟁》은 《명상》, 《명물》들이 지혜를 장려 쓴 책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전례없는 전쟁에서 제국주의정권의 모든 정치가, 군사전략가들을 타승하시였다. **《조선전쟁시기 미와우주본 보르프우 같은 참모장으로 나왔던 보르프우 전 대통령 고메스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당시 미국이 세운 조선전쟁의 모든 작전계획들은 미국과 그편에**

선 서방나라들의 국가수뇌들과 참모장들, 수많은 장군들이 여러차례 모여서 도의한 끝에 작성한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였다.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보고 김일성장군님이 시야말로 이 세상에 한반도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명장 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지구상에서 반제반미투쟁,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놓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명장 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확신하던 군사기술적우세의 허위성이 드러나고 기계침략군의 취약성과 부패성이 만연하여 드러남으로써 공민, 승미사상에 빠져있던 세계 수백만 피압박인민들이 심신을 가지고 반제전선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세계인민들은 미국을 불태워라 하는 외치며 치면 꺼꾸러지는 흙으로 빛은 나라, 불지르면 타버리고는 종이 범으로 불게 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 진리를 받아안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은 《조선인민들처럼 싸우자!》라는 구호를 들고 한결같이 반미투쟁에 떨쳐나섰다. 조선전쟁후 식민지 민족해방투쟁, 반제반미투쟁은 일대 양양기에 들어섰으며 제국주의 식민지배체제는 걷잡을수 없이 흔들려갔다. 세계 여러 대륙에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탄생하고 반제국적력량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변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때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군이 강렬한 군대라는 것은 세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선인민

6, 25-7, 27 미국공 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자유연구회사가 16일 블레연 《조선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를 발행하였다.

블레연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했다. 올해 6월 25일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의 조선전쟁이 다시 회상에 오르고있는데 그중에서 주목되는것은 전쟁도발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을 논하는것은 가당치 않아보이지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전쟁도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세력에 의하여 양도되고 지금도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수 없다. 공정하고 엄격한 력사는 그 진상을 날이 갈수록 고발하고있다. 블레연은 미제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을 전쟁개시날로 정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의 진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미국은 남조선에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고는 그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줘야 《침략자》를 범했다.》는 명분밖에 저들이 직접 개입하여 조선전을 강행하고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하여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던것이다. 미국은 전쟁도발의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의 진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나이지리아주제사상 연구 전구위원회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유엔안보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이 없었다고 천명하며 다른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에 의거하여야만 자기 승리를 다할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수 없다. 공정하고 엄격한 력사는 그 진상을 날이 갈수록 고발하고있다. 블레연은 미제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을 전쟁개시날로 정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의 진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미국은 남조선에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고는 그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넘겨줘야 《침략자》를 범했다.》는 명분밖에 저들이 직접 개입하여 조선전을 강행하고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하여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던것이다. 미국은 전쟁도발의 책임에서 철대로 벗어날수 없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나이지리아주제사상 연구 전구위원회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유엔안보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연방이 없었다고 천명하며 다른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에 의거하여야만 자기 승리를 다할수 있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승리대전에 나타난 가없는 물건이며 전쟁이라는 글부이며 《적》의 승리였다. 《미국동해군사령관 겸 리니쵸이》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쓰디 쓴 대담을 당한 패전자들의 고백을 소개한다.》

《신화는 깨어지고말았다. 우리는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 (미국부장관 마샬) 《솔직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

도리사와 인도네시아조선전

선문화고립학회도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전승 57쪽을 맞는 조선전쟁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이었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이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도발행위를 일삼으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우리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해상관측선을 벌려놓고 회색화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도발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뜨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단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주년에 즈음하여 로트레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로트레이 엔겔스존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지금까지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창건전진 2년도 안되는 청소년인민공화국을 요망치로 말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닌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 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승리의 동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인민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을 잃었다.

우리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해상관측선을 벌려놓고 회색화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도발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뜨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단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주년에 즈음하여 로트레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로트레이 엔겔스존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지금까지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창건전진 2년도 안되는 청소년인민공화국을 요망치로 말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닌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 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승리의 동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인민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을 잃었다.

우리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해상관측선을 벌려놓고 회색화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도발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뜨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단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주년에 즈음하여 로트레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로트레이 엔겔스존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지금까지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창건전진 2년도 안되는 청소년인민공화국을 요망치로 말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닌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 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승리의 동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인민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을 잃었다.

우리는 최근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해상관측선을 벌려놓고 회색화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도발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이 조선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뜨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단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주년에 즈음하여 로트레이조선전선협회 위원장 로트레이 엔겔스존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지금까지 60년전인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창건전진 2년도 안되는 청소년인민공화국을 요망치로 말살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러나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를 지닌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 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물리치고 1953년 7월 27일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지와 신념의 승리의 동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빛나는 승리였다. 조선인민은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것을 잃었다.

조선전쟁에서 거머쥐는 참패를 당한 미국은 하는수없이 정전담판장에 끌려나오지 않았으며 조선전쟁을 《브라우》 특파자가 사담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는가 하는것을 직접 목격하고 견승의 기쁨과 환희도 조선인민과 함께 나누었기때문이다.

나는 김일성주석의 천재적인 군사지략과 인민적정신으로서의 그의 위대한 승리의

의 천재적인 군사지략과 인민적정신으로서의 그의 위대한 승리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치열한 군사적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민공화국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나는 지금도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조선인민이 견승의 기쁨속에 힘써서던 그날의 가슴 벅찬 감동을 잊을수 없다.

## 승리의 력사는 계속 흐른다

로상에서 몇차례의 공습을 받으면서 우리는 판문점의 정전협정 조인식에 도착하였다. 정각 10시, 력사적인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미국의 쓰디 쓴 패배를 의미하는것이였다. 나는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전협정문에 수표하시는 력사적순간에 직접 목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수복을 입으신 김일성동지께서 방에 들어서시어 문간에 수표를 하시는 순간 장내에서 기쁨과 환희의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모두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동지를 환호하며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내걸었다. 평양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것을 세계에 알리듯 고독소리가 계속 울렸다. 평양의 여기저기에 장식등들이 켜지고 도시는 명절 분위

기를 휩싸였다. 다음날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석단에 나오시자 너학생들이 커다란 꽃다발을 그이께 드렸다. 군중대회참가자들은 환호를 울리며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려왔다. 탁월한 령도로 인재를 때려부시고 조선을 해방하시였을뿐 아니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오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감사의 파

리를 터져올랐다. 모두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동지를 환호하며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내걸었다. 평양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것을 세계에 알리듯 고독소리가 계속 울렸다. 평양의 여기저기에 장식등들이 켜지고 도시는 명절 분위

기를 휩싸였다. 다음날 평양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석단에 나오시자 너학생들이 커다란 꽃다발을 그이께 드렸다. 군중대회참가자들은 환호를 울리며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려왔다. 탁월한 령도로 인재를 때려부시고 조선을 해방하시였을뿐 아니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침략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안아오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감사의 파

리를 터져올랐다. 모두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김일성동지를 환호하며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내걸었다. 평양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는것을 세계에 알리듯 고독소리가 계속 울렸다. 평양의 여기저기에 장식등들이 켜지고 도시는 명절 분위

##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을 배격

아랍국가편명 총서기 아르무마흐드 무샤가 19일 중동평화회담개최와 관련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당국자들이 팔레스티나기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평화협상에 전제조건없이 복귀할것을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동부부드스에서의 유대인 《정착촌》건설과 팔레스티나인들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평화회담에서 어떤 진전도 이룩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음을 잘 알수 있게 하는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조선은 아직도 분열된 상태에 있다. 미국은 북침기도 조급대 버리지 않고 있다.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과 간섭, 제재는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승리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 나는 김일성동지와 똑같이 오신 김일성동지께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을 령도하시여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반드시 승리하고 조선이 통일될 날도 꼭 오리라고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화합을 조로히 힘써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위원장 울라지미르 폴스피코프의 서명】

이로부터 미강점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군사작전에 대해 계속 억압하고있다. 21일 티랄라루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미군 1명도 사망하였다. 본사기자

## 증담행위 규탄

베바는에국력량조직인 히즈볼라호의 고위성원이 18일 한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정탐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탐행위가 더욱 위험해지고있다고 깨닫히고 히즈볼라호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쟁에서 베바는인들의 항쟁에 대처할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이 때려달라고있는 이러한 정탐행위를 종당여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인명하였다. 본사기자

## 살인 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와 합의와 규판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베이트 하니아의 한 주민지역에 여러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

## 판 집 위 회

《정간행물번호》 (정간행물발송특별) 전 회: 교관 326-2312, 편집국 326-1328, 편집실 326-5428, 당국사교과부 326-5528, 당국사교과부 331-4528, 사회주의교과부 321-3528, 7-011333 (제13003호) (취송신문 제3호) 품목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파파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